

병오대동보발간(丙午大同譜發刊) 서문(序文)

인류(人類)가 고귀(高貴)하다는 것은 한 시대(時代)의 삶의, 발자취를 기록(記錄)으로 남기어 역사적(歷史的)인 존재가치(存在價值)가 되고 인류(人類)의 문화유산(文化遺産)이 됨으로써 인간사발전(人間事發展)의 기초(基礎)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인류역사(人類歷史)는 기록으로부터 시작(始作)된다고 하였습니다.

족보(族譜)는 한 씨족(氏族)의 연원(淵源)과 세계(世系)의 내력(來歷) 및 영고성쇠(榮枯盛衰)에 대한 자료(資料)를 집대성(集大成)한 보감(寶鑑)이라 하겠습니다. 나라에 사기(史記)가 없으면 그 나라 민족사(民族史)의 변천사(變遷事)와 발전사(發展事)를 모르게 되고 한 씨족(氏族)에게 족보(族譜)가 없으면 조상(祖上)의 행적(行蹟)이나 세계(世系)를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自身)의, 뿌리마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목지필수유심근(樹木之必須有深根)이어야 지엽번무(枝葉繁茂)라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수원월원지수류월원(水源越遠之水流越遠)이라 물은 수원이 멀수록 더 멀리까지 흘러간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그 조상(祖上)이 훌륭하고 뿌리가 깊어야 후대(後代)가 번창(繁昌)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씨족(氏族)이든지, 조상의 내력과 세계(世系)를 포괄적(包括的)으로 기록한 족보를 편찬간행(編纂刊行)함으로써 선조(先祖)의 행적(行蹟) 및 자신의 연원(淵源)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씨(盧氏)의 득씨조(得氏祖) 『노혜(盧僖①)』께서는 상경(上卿)으로서 원래 고혜(高僖)였는

데 나라를 부강(富強)하게 만든 공로(功勞)로 노국(盧國)을 식읍(食邑) 받고 노씨(盧氏)를 하사(下賜) 받음으로써 고씨(高氏)인 고혜(高僖)가 노국왕(盧國王)이 되어 우리 노씨득씨조(盧氏得氏祖)、노혜(盧僖)가 되셨습니다. 득씨조(得氏祖) 노혜(盧僖)께서는 염제(炎帝②) 신농황제(神農皇帝)의 六十一世孫이고 백이씨시조(伯夷氏始祖③) 여왕(呂王)의 四十八世孫이며 강태공망(姜太公望④)의 十一世孫입니다.

우리나라 노씨(盧氏)의 시조(始祖) 수(穗) 할아버지께서는, 중국 당(唐)나라 범양(范陽) 사람으로 서당(唐)나라 선종(宣宗) 말엽에 한림학사(翰林學士) 상호군(上護軍)을 역임하셨으며 아홉 아들을 거느리고 동으로 가을 건너 처음에는 평안도(平安道) 정주(定州) 능리(菱里)에 잠시 살다가 두 번째로 용강(龍岡) 쌍계촌(雙梯村)으로 옮겨 정착하였습니다. 아홉 아들이 다 함께 등과(登科)하고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며 적(敵)을 물리친 공(功)으로 분봉(分封)을 받아 구읍(九邑)에 봉읍(封邑)되어 구관봉백(九貫封伯)이 되었으며, 장연백(長淵伯) 휘(諱) 구(丘) 공께서 우리 장연노씨(長淵盧氏)의 시조(始祖)이시고 구관(九貫)의 위수(爲首) 이십니다.

우리 장연노씨(長淵盧氏)는 평안도(平安道)에서 고려조(高麗朝) 현종왕(顯宗王) 때 경상북도(慶尙北道) 청도(淸道)로 이거(移居) 하였으며 고려조(高麗朝) 말엽에 이르러 영남도(嶺南右道) 창녕(昌寧)와 양서(兩西) 평안도와 황해도(湖西) 충청도(忠淸道)로 흩어져 삶의 터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선조(先祖)께서는 고려조(高麗朝) 때 장연백(長淵伯)의 아들 휘(諱) 안필(安弼)께서 문하시랑(門下侍郎)으로, 거란(契丹)의 침공(侵攻)을 막은 큰 공(功)으로 연강군(淵康君⑤)이 되셨고, 특진보국삼중대광(特進輔國

三重大匡) 五世孫 휘(諱) 희연(希衍)께서는 밀원군(密原君)에 봉작(封爵) 되셨으며 청도(淸道)로 이주(移住) 하셨으니, 현종(顯宗) 왕께서 덕종(德宗)의 사부(師傅)로 부름이 있었지만 사양(辭讓) 하니, 운문(雲門) 사십리(四十里) 땅을 사패(賜牌) 하고 남비선학입운문(南飛仙鶴入雲門)의 시귀(詩句)를 증시(贈詩) 하였습니다. 七世孫 휘(諱) 단(旦)께서는 삼중대광(三重大匡) 상서령(尙書令)에 추봉(追封) 되시고 최충(崔冲)의 구재(九齋)와 더불어 당시 유신(儒臣)이 세운 고려십이공도(高麗十二公徒) 중 광헌공도(匡憲公徒)를 세워 흥교(興敎)에 힘썼으니, 고려사(高麗史)에 그 행적(行績)이赫赫(赫赫)이 남아 있습니다.

十三世孫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정승(政丞) 휘(諱) 명신(命臣)께서는 삼 형제를 두시니, 長子인 휘(諱) 국주(國柱)께서는 금자승록대부(金紫崇祿大夫) 상서이부판사(尙書吏部判事)를 역임하시고 창녕(昌寧)으로 우거(寓居)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창녕에 세거(世居), 장연노씨창녕파(長淵盧氏昌寧派)를 이루었고, 次子 휘(諱) 태주(台柱)께서는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호군(護軍)을 역임하시고 평양성(平壤城) 밖에 우거(寓居)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그곳에 세거(世居), 장연노씨평양외성파(長淵盧氏平壤外城派)를 이루었고, 三子 휘(諱) 성주(誠柱)께서는 삼한삼중대광보국(三韓三重大匡輔國) 벽상좌명공신(壁上佐命功臣)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를 역임하시고 괴산(槐山)에 우거(寓居)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괴산(槐山)에 세거(世居)하면서 장연노씨괴산파(長淵盧氏槐山派)를 이루었습니다. 세칭(世稱) 장연노씨(長淵盧氏)의 세 파류(派流)라 합니다.

이때가 고려 말엽(末葉)으로써 세 파류(派流) 사이에 연락이 두절(杜絶)된 상태로 보낸 세월이 수백성

상(數百星霜)이 되었습니다。

세 파류(派流)의 후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선대(先代)의 계보(系譜)를 이어가기 위해 꾸준히 파보(派譜)를 간행(刊行)하여 왔으며 파보편찬(派譜編纂)을 할 때마다 함께 합보(合譜)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吐露)하였음이 각 파종(派宗)의 문헌(文獻)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 하였습니다。 창녕파(昌寧派)의 종인(宗人)、 상기(相琪⑥)께서 공무수행(公務隨行) 중 괴산파(槐山派)의 일가분들을 만났을 그야말로 이 같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조우(遭遇)는 조상님께서 보살펴 주신 은덕(蔭德)이요, 후손들의 간절(懇切)한 소망(所望)이 하늘을 감동케 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이로써 一九六六년 병오년(丙午年)에 양서(兩西:평안도와 황해도)의 일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한(恨)을 가슴에 안고서 창녕파 괴산의 두 파류(派流)가 먼저 파보(派譜)를 편찬간행(編纂刊行)하였으니, 처음으로 합보(合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연문(長淵門)의 선대누경(先代累經)과 가승(家乘)은, 몽고병화(蒙古兵火)를 당해 소실(燒失)되었으니, 十一世孫 사재시경(司宰寺卿) 휘(諱) 영(詠) 때이며, 이후 창녕파(昌寧派)의 경우 문적(文跡)과 보첩(譜牒)을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소실(消失)된 후 족보(族譜) 없이 지내오다가 三百餘年이 지난 一八二〇년에 경진파보(庚辰派譜)를 간행(刊行)하였고, 괴산파(槐山派) 또한 병화(兵火)로 소실(燒失)된 후 一八〇六년 병인파보(丙寅派譜)를 간행(刊行)하였으며, 평양외성과(平壤外城派)는 월남(越南)한 일족(一族)들이 一九九三年에 계유파보(癸酉派譜)를 간행(刊行)하였습니다。

그동안 세계(世系)를 초안(草案)하고 파보(派譜)와 파보간행(派譜刊行)을 이어온 것은, 대대(代代)로 세계(世系)를 정립(定立)하고 계보(系譜)를 통하여 종친돈목(宗親敦睦)을 이루고자 한 조상(祖上)님들의 각고(刻苦)의 노력을 후손들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조상(祖上)님들의 크나큰 은혜(恩惠)로 인하여 우리 장연문역사상(長淵門歷史上) 최초로 금번에 대동보(大同譜)를 편찬하고 아울러 인터넷 전자족보(電子族譜)를 구축하게 된 것은, 조상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신 인고(忍苦)의 산물(產物)로서 우리 문중(門中)의 위대한 보학창달(譜學暢達)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후손(後孫)들은 조상(祖上)님들 사모(思慕)하는 숭조정신(崇祖精神)을 이어서 수당갑족(隋唐甲族)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서기 二〇二六년 병오(丙午) 초여름

장연노씨대종회(長淵盧氏大宗會)

장연노씨(長淵盧氏) 대동보편찬위원회(大同譜編纂委員會) 삼가 씀

【脚註】

① 노혜(盧僎) .. 노씨득씨조(盧氏得氏祖)로 휘(諱)는 혜(僎)요 자(字)는 경중(敬仲)이고 호(號)는 조망(祖望)이다.

② 염제(炎帝) .. 휘(諱)는 강석년(姜石年) 호(號)는 염제(炎帝) 신호(身號)는 신농(神農)으로 벼슬은 복희황제(伏羲皇帝)이며 중국 삼황(三皇) 중 한 분이다.

③ 백이씨시조(伯夷氏始祖) .. 여음(呂邑) 땅을 받고 여국(呂國)왕으로 봉(封)해지고 여(呂)의 지명(地名)을 따서 여씨(呂氏)로 사씨(賜氏)되고 다시 강성(姜姓)으로 내려졌으니, 이때부터 여씨(呂氏)와 강씨(姜氏)의 씨(氏)를 사용하면서 백이조(伯夷祖)가 씨시조(氏始祖)가 되었다.

④ 강태공망(姜太公望) .. 중국 주나라 초기의 정치가로 성(姓)은 강(姜)이고 이름은 여상(呂尚)으로 강태공망(姜太公望)은

별호(別號)이다.

⑤ 연강(淵康) .. 황해도 장연(長淵)의 옛 지명이다.

⑥ 상기(相琪) .. 三十二世 창녕(昌寧) 집의공파(執義公派) 용(崐) 后

장연노씨대종회(長淵盧氏大宗會)의 위대한 보학창달(譜學暢達) 인터넷 족보 구축

우리 인류(人類)의 문화유산(文化遺産)에서 소중한 하나가 족보(族譜)입니다. 족보는 선대(先代)의 세계(世系)와 계통(系統)을 밝히고 자손의 파류(派流)를 담아 數萬代에 전승(傳承)하는 종문(宗門)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씨족(氏族)의 뿌리란 한줄기 물줄기가 천파만파(千波萬波)로 대해(大海)를 이루듯이 일본(一本)의 시조(始祖)로부터 數萬代를 계승(繼承)하여 일근만지(一根萬枝)로 크게 번성하는 도도(滔滔)한 흐름을 기록한 역사서(歷史書)가 바로 족보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장연노씨 대동(大同譜) 병오보(丙午譜)는 인터넷 족보를 먼저 구축하고 서책족보를 발간하면서 어려운 한문족보(漢文族譜)를 한자와 한글을 병행하였으며 시류(時流)에 따라 구축한 인터넷 족보는 장연노씨 대종회 홈페이지에서 이름만 입력하면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족보(族譜)를 개설하였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이용방법】

- ◆ 홈페이지 웹 주소 .. 다음(Daum) 사이트에서 한글로 장연노씨 대종회를 입력합니다.
- ◆ 회원가입 ..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 메뉴 클릭 각 항목을 입력한 후 약관의 동의합니다.
- ◆ 홈페이지 상단 인터넷 족보 메뉴 두 번째 인터넷 족보 보기 클릭 후 상단 메뉴 이용안내 메뉴를

클릭하여 폰트 설치 다운로드를 합니다.

- ◆ 홈페이지 상단 인터넷 족보 메뉴 두 번째 인터넷 족보 보기를 클릭 검색란에 종인(宗人)은 성을 뻘 이름만 입력하고 사위는 성명을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계통도 책 보기 상세 정보를 통해 원하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안】

- ◆ 서책족보(書冊族譜) 일정한 주기(週期)에 따라 편찬(編纂)하지만, 인터넷 전자족보는 출생(出生) 사망(死亡) 등 행적변경(行跡變更) 사항을 실시간 등재(登載)할 수 있습니다.
- ◆ 계통도(系統圖) 책(冊)보기, 상세정보(詳細情報) 기능지원(機能支援)을 통하여 직계세계(直系世系)와 촌수(寸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 책 보기 상단 프린트(P) 메뉴에서 개인별(個人別) 소종별(小宗別) 파종별(派宗別)로 출력 가승(家乘)을 편집(編輯)할 수 있습니다.
- ◆ 서책족보(書冊族譜)와 서체(書體)가 같고 구성형식(構成形式)이 같습니다.
- ◆ 전상(見上) 전하(見下)가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됩니다.
- ◆ 동명이인(同名異人)의 계파(系派) 또는 부친명(父親名) 조부명(祖父名)으로 구분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의 콘텐츠 검색으로 씨족(氏族)의 원류(源流)와 유래 역대현조(歷代顯祖)와 유적유물(遺蹟) 유물(遺物) 등 문중사(門中史)와 문중 행사 및 종원의 동정(動靜)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족보의 구축 개요】

인터넷 족보란 시류(時流)의 변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전승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의 족보로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이름(宗源) 및 성명(家系) 입력 즉시 자기의 세계(世系)와 뿌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동안 정보하기 어려웠던 자료를 국한문(國漢文) 혼용으로 편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편찬하였습니다.

족보편찬(族譜編輯)은 을축보(乙丑譜), 계유보(癸酉譜) 및 역대족보(歷代族譜)를 기준(基準)으로, 고려사(高麗史)를 비롯한 역대왕조실록(歷代王朝實錄)에 의한 선대사록(先代史錄)과 우거지(寓居地)의 지역지(地域誌)와 향안(鄉案) 시대별(時代別), 역대인물록(歷代人物錄)과 과거급제자기록(科擧及第者記錄) 등 각종 기록문헌(記錄文獻)을 발취(拔萃)하여 선조(先祖) 사적사실(史蹟事實)을 등재(登載)하였습니다.

오늘날 시대적(時代的) 변천(變遷)은 씨족혈연(氏族血緣)과 자신의 연원(淵源)에 대한 보편적실체(普遍的實體)인 개념실재론(概念實在論)이 퇴색(褪色)되고 윤강(倫綱)이 퇴락(頹落)하는 시류(時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연문중(長淵門中)은 창녕파(昌寧派) 평양외성파(平壤外城派) 괴산파(槐山派) 황해진사파(黃海進士派)가 합보(合譜)를 이루는 대동보(大同譜)를 간행하고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潮流)에 편승(便乘)하여 인터넷이란 족보(族譜)를 구축한 것은 후손들에게 명문갑족(名門甲族)으로서 자긍심(自矜心)이 심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문중의 훌륭한 업적(業績)이 계승(繼承)되기를 바랍니다.

二〇二六년 병오(丙午) 초여름

장연노씨대종회(長淵盧氏大宗會)

장연노씨 대동보편찬위원회(長淵盧氏大同譜編纂委員會) 씀

병오대동보발간사(丙午大同譜發刊辭)

인간(人間)이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이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가치관(價値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역사(歷史)를 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 조상(祖上)을 받들고 뿌리를 찾아 정체(正體)를 확인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업(課業)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라에 국사(國史)가 있는 것처럼 가문(家門)에는 가승(家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족보(族譜)를 만들어 혈통(血統)을 확인하고 조상(祖上)을 추원(追遠)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값진 행위(行爲)임이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 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국제사회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심성(心性) 또한 철저한 개인주의로 변화하면서 날이 갈수록 일족(一族)에 대한 개념(概念)이 허물어지고 씨족(氏族)에, 대한 생각은 점점 멀어져 심지어 신세대일수록 자신의, 뿌리인 본관(本貫)、조차 모르는 이가 허다한 실정임으로 三十餘年 주기로 간행(刊行)한 족보편찬(族譜編纂)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장영단은 분단의 아픔을 안고 평안도와 황해도에 거주하는 일가들이 많은 상태에서 일근만지(一根滿地)로 크게 번창(繁昌)하게 되어 평안도와 황해도 일가들의 동참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금보(今譜)에 와서 十四世 휘(諱) 국주(國柱)、 휘(諱) 태주(臺柱)、 휘(諱) 성주(誠柱) 公의 후예(後裔)들과 합보(合譜)를 이루게 되어 명실상부한 대동보를 편찬하게 됨으로써 금보(今譜) 대동보 편찬은 우리 장연문(長淵門)의 족보사(族譜史)에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연문(長淵門)은 十四世에서 창녕(昌寧)、 평양외성(平壤外城)、 괴산(槐山) 세 갈래 파(派流)로 형성되어 왔으나, 금회(今回) 대동보편찬(大同譜編纂)을 계기로 十二世에서 안강부원군(安康府院君) 휘(諱) 진(鎭)과 진사(進士) 휘(諱) 표(彪) 황해도 거주(거주) 형제분께서 파류(派流)가 이미 형성되었음이 확인되어 우리 장연문(長淵門)의 계보사(系譜史)에 새로운 파류(派流)를 알게 되었으며, 청도읍 원정동에 있는 十七世 서흥도호부사(瑞興都護府使) 휘(諱) 윤창(胤昌) 조(祖)의 묘소와 비명(碑銘)을 찾게 되어 五百餘年の 잃어버린 역사를 재 조명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청도군을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고 가꾸어 왔다고 주장하는 청도 향토 사학자들의 기록에 따라 우리 조상님들의 훌륭한 유전과 유업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은 후세에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동시에 족보(族譜)와 문헌(文獻)、 금석문(金石文)의 부분적인 기록변경(記錄變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사료(史料)가 됩니다.

특히 十二世 황해도 진사공파와 평양외성파의 폭넓은 합보를 계기로 러조실록(麗朝實錄)과 평양지(平壤誌) 및 향안(鄉案)을 위시한 각종 문헌에 따라 사적(史蹟)을 바로잡고, 조상님들의 행적을 바르게 기록함으로써 손색없는 족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성취하였음을 밝히 드립니다.

족보(族譜)란 동일(同一) 혈족(血族)의 원류(源流)를 밝히고 그 혈통(血統)을 존중(尊重)하며 가통(家統)의 계승(繼承)을 명예로 삼는 한 가문(家門)의 역사책(歷史冊)이며, 그 혈통을 기록(記錄)한 문화(文化)화한 보감(寶鑑)으로서 종적(縱的)으로는 시조(始祖)로부터 현재의 종족원(宗族員)까지의 세계(世系)의 관계를 알 수 있고, 횡적(橫的)으로는 현재의 일족(一族) 간 상호(相互) 혈연적(血緣的)인 친소원근(親疏遠近)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엮은 가보(家寶)라 할 수 있습니다. 족보를 간행(刊行)하는 취지는 조상의 좋은 가풍(家風)을 이어받고 조상의 유덕(遺德)을 추모(追慕)하는 소위 존조(尊祖)와 일가친척 간의 촌수(寸數)를 밝혀 친소원근을 알며 씨성(氏姓) 내부의 상하 질서를 확립(確立)함으로써 화목도독(和睦敦篤)을 이루게 하는 저레별이를 수합(收合)하는데, 있을 뿐 아니라, 조상을 숭배(崇拜)하고 가계(家系)를 계승(繼承)하며 씨족(氏族)을 단결하고 소목(昭穆)을 분별하는 등 동족집단(同族集團)의 본질을 여실히 나타내는 동족결합(同族結合)의 물적 표현이기 때문에 가계의 영속과 씨족의 유대를 존중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음으로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노씨는 당(唐)나라 말 시조(始祖) 한림학사(翰林學士) 『휘(諱) 수(穗)』 할아버지에서 아홉 아들을 거느리시고 동래 하시어 신라왕조의 평정에 크게 기여(寄與)함과 동시에 고려 때는 거란의 침입을 막는데 아홉 아들이, 등과하여 현현한 공적을 남기므로써 구원을 받음과 구원을 이루게 된 태성가족(泰盛家族)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의 뿌리를 같이하는 비문(卑門)의 족보는 창녕, 황해도 평양외성, 괴산의 파보와 세보를 합하여 열한 번째로 발간하게 되며, 그중 을족보에 이어

금보(今譜)는 명실상부한 대동보로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날 시대 변화에 따라 너무나 방대한 거주지 분산으로 많은, 종원들의 소통 두절 등으로 다 같이 참여, 되지 못함과 조국 분단의 아픔으로 평양, 황해도 등에 있는 일가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훗날의 숙제로 남겨 후세의 몫으로 돌려 드리는 바이나, 금회(今回) 발간되는 대동보는 장연문의 족보 역사를 재정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후의 족보편찬에도 크게 기여(寄與)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보(今譜)의 대동보 편찬은 종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사하는 편찬위원님의 재능 기부와 뜻이 있는 종원님들의 협찬금에 의존하였으며, 시대 조류에 맞추어 인터넷 족보를 구축함과 동시에 서책족보를 발간하게 되어 미래 지향적이고 족보 발간의 개선을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족함이 없지 않음은 족친(族親)님들의 질책과 성찰에 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연노씨 대종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인 신규 등록과 제적 사항 변경 등에 아낌없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록내용(收錄內容)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한글화 작업에, 역점을 두고 누나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음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대동보편찬(大同譜編纂)에 즈음하여 협찬하여 주신 종원님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원렬(元烈①), 창환(昌煥②), 구성(圭星③) 세 분의 대종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장연문중의 계보사(系譜史) 탐구 및 족보편집(族譜編輯) 등에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대식(大植④) 종원님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일가들의 소재지(所在地)를 파악(把握)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문헌

등을 발채(拔萃)하여 선대(先代)의 행적을 규명(糾明)·튼튼하여 올바른 문중보사(門中譜史)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대동보(大同譜)의 국역번역(國役翻譯) 작업과 교정편집(校正編輯) 등 제반 업무에 심혈을 기울이신 유성(圭星) 총무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창녕, 평양, 괴산 각 파의 편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보책(譜冊)이 종중의 돈독(敦睦)과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번영(繁榮)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발간사에 거듭합니다.

서기 二〇二六년 병오(丙午) 초여름

후손(後孫) 三十三世 수환(秀煥)⑤ 삼가 씀

【脚註】

- ① 원렬(元烈) .. 三十三世 제二十四代 대종회장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 ② 창환(昌煥) .. 三十三世 제二十五代 대종회장 창녕 집의공파 용(嶧)后
- ③ 유성(圭星) .. 三十四世 제二十六代 대종회장 대동보편찬 총무위원 창녕 집의공파 용(嶧)后
- ④ 대식(大植) .. 三十四世 대동보편찬 고문 창녕 시정공파 희(嶧)后
- ⑤ 수환(秀煥) .. 三十三世 대동보 편찬위원장 창녕 집의공파 용(嶧)后

대동보발간사(大同譜發刊辭)

장연(長淵) 노씨(盧氏) 인터넷 족보(族譜)와 대동보(大同譜)가 간행됨을 축하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이번이 간행되는 족보(族譜)는 기존 족보에서 누락되었거나 기존 족보 이후 태어난 새 종친들을 포함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족보의 간행은 장연(長淵盧氏)의 세 주류(主流) 가운데 하나인 평양외성파(平壤外城派)가 장연노씨 족보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평양외성파는 물론 장연노씨 종중(宗中)에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씨(盧氏) 성(姓)의 출현은 중국 당(唐)나라 말,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지내신 휘(諱) 수(穗) 할아버님께서 중국 왕실의 정란(政亂)을 피해 아홉 명의, 아드님들과 함께 신라(新羅)로 망명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구(丘) 할아버님께서 장연(長淵)에 자리를 잡으시면서 장연노씨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十四世에 이르러 국주(國柱) 태주(臺柱) 성주(誠柱) 세분, 형제들께서 각각 창녕(昌寧)과 평양(平壤)과 괴산(槐山)으로 향거(鄉居)를 하시면서 장연노씨(長淵盧氏)는 세 파(派)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분, 형제들 가운데 둘째가 되시는 호수군(護軍公) 태주(臺柱)께서는 평양성밖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 후, 후손들이 평양과 인접한 대동군(大同郡) 몇몇 곳에, 집성촌(集姓村)을 이루면서 「장연노씨 평양외성파」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후 부하의 여러 지역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장연노씨가 세 파(派)로 나뉘어 이후 평양외성파 후손들이 다른 두 곳의 장연노씨(長淵盧氏)들과는 數百餘年 동안 거의 교류를 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이었던 분단과 六·二五 전쟁은 장연노씨 평양외성파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에서부터 일부 종친들이 월남하기 시작하였으나, 이와 같은 북한이로부터의 탈출은 六·二五 전쟁을 겪으면서 대규모적(大規模的)으로 일어나졌습니다.

대부분의, 종친들이 남하해 탈출하느라 미처 족보를 지니지 못한 채 월남하였습니다. 따라서 월남한 평양

의성과 종치들의 세보(世譜)는 물론 자신의 세수(世數)나 항렬(行列)조차 모른 채 살아온 경우가 적지 않았습
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후(戰後) 세대에 이르러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게 되자, 월남한 평양외성과 종치들의 자신의, 뿌리와 정체를 찾거나 노력했습니
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몇몇 종치들이 우선 평양외성과 종보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평양
에서 월남하여 충주에 정착하신 한 분께서 장영노씨 평양파와 관련된 자료를 갖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
습니다. 그리하여 五年餘를 찾아 그 집안에서, 수백 년간 대대로 기록 해온 문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평양외성과 종치에게는 귀중한 기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문서를 찾은 종치들이 기록을 검토
정리하니, 추방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一九九三年 『長淵盧氏平壤外城派世譜』를 간행하였
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지닌 여러 한계성으로 인해 새 족보에는 월남한 평양외성과 종치들 상당수가 포함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전쟁 이후의 북한 지역 종치들의 상황도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평양외성과
의 세보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간행되는 족보는 무엇보다도 장영노씨(長淵盧氏)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영노씨 창녕파(昌寧派), 평
양외성과(平壤外城派), 괴산파(槐山派)의 세계(世系)가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또한 부족하나마 평양외성과의 세보(世譜)가 어느 정도나마 보완되고 기록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서도 의미가 큼니다.

새로이 간행되는 인터넷 족보에 평양외성파를 포함, 시키고자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시면서 갖은 수고를 마다하

지 않은 신가행위원장 수환(秀煥) 어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기 二〇二六년 병오(丙午) 초여름

후손(後孫) 三十四世 길명(吉明)① 근서(謹書)

【脚註】

① 길명(吉明) : 三十四世 평양의성과 후전 고려대학교 인문대학장, 사회학 박사

병오대동보발간사(丙午大同譜發刊辭)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연(長淵)을 관향(貫鄉)으로 하는 노씨 자손 한 사람이 각양각색(各樣各色)의 운명을 가진 알알한 구슬이라면 족보(族譜)는 그런 구슬들을 일가친척 피붙이라는 천륜(天倫)으로 꿰어 주는 버리(維)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혹자(或者)는 족보를 구태의연(舊態依然)한 유산(遺産)쯤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족보는 구태의연한 유산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화나 구습(舊習)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족보(族譜)라고 부르는 것을, 다른 문화권(文化圈)의 사람들은 가계도(家系圖) (종보(宗寶), 가보(家寶) 등으로 다르게 일컫고 있을, 뿐입니다.

이즈음을축보(乙丑譜) 一九八五年) 발행 이후 생졸(生卒) 한 종원들을 새로이 정리한 장연노씨 대동보(大同譜)와 인터넷 족보가 동시에 간행됨은 드러내놓고 자랑해도 좋을 문화적자긍(文化的自矜)

이며 스스로 없이 자축하여도 좋은 대동의 경사라 생각됩니다。

괴산파(槐山派) 파조(派祖)이신 十四世 휘(諱) 성주조(誠柱祖)의 생졸(生卒) 연도가 미상이라 성주(誠柱祖)께서 언제 괴산에 입향(入鄕)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언급할 수 없으나 앞뒤의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하던대 七百餘年쯤은 될 것으로 여림이 됩니다。

사오랑에 처음으로 묘를 쓴 것으로, 확인되는 二十一世 영백조(永伯祖)의 생·졸(一四九八～一五七〇)로부터 추산해 보면 대 장연노씨가 사오랑서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하고, 있는 세월이 무릇 五百餘年쯤으로 여림이 됩니다。

강산이 五十번이나 바뀔 수 있는 유구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항렬(行列)과 촌수를 명확히 셈할 수 있는 집성촌으로 변창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족보가 가늠해 주는 혈족(血族)의 무게와 족보가 부여 주는 질서의 엄격함 때문일 거라 사료 됩니다。

족보는 내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이정표자 자아(自我)의 존재(存在)를 대대손손(代代孫孫) 대(代)물림 해줄 불변의 사기(史記)입니다。 장연노씨(長淵盧氏) 괴산파(槐山派)는 七百餘年이라는 세월이, 갖는 무게만큼 변창(繁昌)하며 발전하였음을 자부하며, 인터넷 족보 구축과 대동보(大同譜)와 간행(刊行)에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앞장서신 편찬위원(編纂委員) 제위(諸位)、앞장서 수단하고 기꺼이 수단에 협조한 괴산파(槐山派) 종친(宗親) 제위(諸位)께 심심한 감사를 전하는 것으로 발문(跋文)에 가름합니다。

서기 二〇二六년 병오(丙午) 초여름

【脚註】

① 명식(明植) ..三十六世 피산파 종친회장 공조좌랑공파 후연(后淵)后

병오대동보편집후기(丙午大同譜編輯後記)

장연노씨(長淵盧氏)의 선대보기(先代譜記)와 누경(累經)을 처음으로 소실(燒失)한 것은, 몽고병화(蒙古兵火)로 기인(基因) 되었으니 十一世 휘(諱) 영(詠), 조(祖) 때이며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十三世 휘(諱) 명신(命臣)께서 아들 셋을 두셨으니 長子 휘(諱) 국주(國柱)께서 창녕에 우거(寓居)하였으니, 창녕파(昌寧派)의 파조(派祖)요. 次子 휘(諱) 태주(臺柱)께서 평양성(平壤城) 밖 에 우거(寓居)하면서 평양외성과(平壤外城派)의 파조(派祖)요. 三子 휘(諱) 성주(誠柱)께서는 피산에 우거(寓居)피산파(槐山派)의 파조(派祖)이시니 이로써 장연노씨의 세 갈래 파계(派系)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창녕파의 문적과 가승(家乘)이 소실(消失)되었으니 十九世 만취공(晩翠公) 휘(諱) 침(沉) 조 때였습니다. 문헌(文獻)에 따르면 평양외성과(平壤外城派)의 경우 六·二五, 동란 때 황망(慌忙)한 가운데 피난을, 하느라 족보를 채저오지 못하였으니, 선대의 기록을 고증(考證)할 수 없고, 피산파(槐山派) 역시 병화(兵火)로 인하여 가승(家乘)이 소실(燒失)되었다는 사실을 이후 (後代)가 간행한 족보의 서문(序文)과, 발문(跋文)의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祖上)님들께서는 뿌리를 규명(糾明)하고 세계(世系)를 이어가기 위하여 세계(世系)의 초안(草案)을 편집하고, 세 파류(派流)에서는 數百年을, 끈이지 아니하고 파보(派譜)와 세보(世譜)를 편찬간행(編纂刊行)함으로써 오늘날에 이르러 창녕파(昌寧派)、평양외성과(平壤外城派)、괴산파(槐山派)、황해진사공파(黃海進士公派)가 대동보(大同譜)를 간행하는 합보(合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장연문중(長淵門中) 보학사(譜學史) 최초의 대동보(大同譜)가 간행(刊行)되기까지 七年의 짧은 시간은 소요되었으며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적지 않았으니, 원만한 족보편찬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一、 편찬실무(編纂實務)를 담당할 분야별 위원(委員) 구성원(構成員)의 면면(面面)이었으니, 족보 편찬(族譜編纂)에 종사할 실무자는 최소한의 편찬 경험이 있어야 하고 보학(譜學)、계보학(系譜學)、한학(漢學)은 물론(勿論)이고 문중내력(門中來歷)과 조상(祖上)으로부터의 대대(代代)로 이어온 세계(世系)의 계통(系統)과 분파(分派)에 대한 소양(素養)을 갖추어야 합니다.
- 二、 씨족(氏族)의 보감(寶鑑)인 족보의 중요성(重要性)과 필요성(必要性)을 사전에 자손들이 공감(共感)할 수 있어야만 참여율(參與率)이 재고(再考)될 수 있습니다.

금번(今番) 대동보(大同譜) 편찬 과정에서 어려웠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 요인은 첫 번째 항(項)의 문제점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의 부족이었고 두 번째 항(項)으로 혈연(血緣)과 자신의 연원(淵源)에 대한 이해부족(利害不足)과 일부 종원의 무관심(無關心)은 유감(遺憾)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인고(引告)의 시간 속, 잉태(孕胎) 교본(稿本)된 족보(族譜)는 인터넷 전자 족보를 구축

하였으니, 우리 장연노씨(長淵盧氏) 보학사(譜學史)에 있어 위대한 보학문화(譜學文化) 창달(暢達)을 이루었고 또한 우리 문종의 족보편찬 수백년역사상(數百年歷史上) 전체 파류(派流)가 함께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서지대동보(書誌大同譜)는 모두의 자긍심(自矜心)을 고취(鼓吹)시켰습니다.

서지대동보(書誌大同譜)와 인터넷 전자족보(電子族譜)를 구축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도출(導出)된 사항은 선대의 세덕(世德)과 입향조(入鄉祖)의, 행적(行跡)에 따른 문헌(文獻), 금석문(金石文)의 기록 변경, 파류(派流)의 변화와 잃어버린 조상묘소(祖上墓所)를 찾은 것과 실록(實錄)과 각종 기록문헌(記錄文獻)에 적재(蹟載)된 조상님들의 유적(遺蹟) 발굴이었습니다.

一、 청도문화원과 향토사학자(鄉土史學者)들이 청도사(淸道史)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청도의 대표적(代表的)인 고려호족(高麗豪族)으로 고려 말엽에 수백호(數百戶)의 장연노씨가 세덕(世德)을 이루고 살았다는 사료적(史料的) 사실을 입증(立證)한 것입니다.

二、 우리의 문헌(文獻)과 금석문(金石文)에는 청도입향조(淸道入鄉祖)가 十一世 휘(諱) 영(詠)에게서, 고려 현종(顯宗:재위 一〇〇九~一〇三二) 때 덕종왕(德宗王)의 사부(師傅)로 부름을 받았고 이를 사양, 一〇一四년 갑인(甲寅)에 입안(立案)하여 一〇二〇년 정신(庚申)에 운문(雲門) 사십리 땅을 사패(賜牌)를 받고 남비선학입암문(南飛仙鶴入雲門)이라는 시를 증시(贈詩) 받은 것으로, 기록됨, 그러나 고려실록에 따르면 휘(諱) 영(詠)께서는 벼슬이 사재시령(司宰寺令) 상국(相國) 아니라 희종(熙宗:재위 一二〇四~一二二二) 때 사재시경(司宰寺卿)으로 실려 있고 아들 안강부원군(安康府院君) 휘(諱) 진(鎭)께서 一二七〇年生인 점을 고려할 때

사록(史錄)의 기록에도 상이(相異)하고 시대적연대(時代的年代)에도 부합(符合)하지 않음으로 대동보(大同譜)에서는 청도입향조(淸道入鄕祖)를 五世 특진보국삼중대광(特進輔國三重大匡) 밀원군(密原君) 휘(諱) 희연조(希衍祖)로 정정(訂正) 등재하였습니다.

三、 지금까지 장연문중(長淵門中)의 파류(派流)는 十四世에서 분파(分派)된 창녕파(昌寧派)、평양외성과(平壤外城派)、괴산파(槐山派) 세 파계(派系)였으나, 대동보 편집 과정에서 十二世서안강부원군(安康府院君) 휘(諱) 진(鎭)、황해(黃海)의 진사(進士) 휘(諱) 표(彪) 형제가 분파되면서 황해진사공파(黃海進士公派)의 파계(派系)가 확인되었습니다.

四、 대동보 선대 사적란(史蹟欄)에 품계(品階) 및 직책(職責)、과거금제、실록등재(實錄登載)、행적(行蹟) 등을 새롭게 발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五、 고려호족묘「高麗豪族墓」五世 휘(諱) 희연(希衍)、六世 휘(諱) 영절(穎節)、휘(諱) 영열(穎烈)、八世 휘(諱) 우(祐)、十世 휘(諱) 지명(之明)、十二世 휘(諱) 진(鎭)의 묘소로 추정」 여섯 기록을 청도읍 원정리 안(統安) 상당(上黨)에서 추증 발굴하였으며, 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잃어버린 묘(墓) 十五世 안동도호부사(安東都護府使) 휘(諱) 변백(抔白)、十六世 길주목사(吉州牧使) 휘(諱) 신동(信叢) 十七世 광주부윤(廣州府尹) 휘(諱) 윤우(胤祐) 조(祖)의 묘소를 통안(統安) 상당(上黨)에서 찾았으며 또한 十七世 서흥도호부사(瑞興都護府使) 휘(諱) 윤창(胤昌) 조(祖)의 묘소는 원정리 정촌(井村) 뒷산에서 찾았습니다(대종회 홈페이지 시대를 초월한 효행 참조)

六、 지금까지 구전(口傳)으로 전해오던 청도의 신원(新院) 들녘에서 금정(金亭) 들녘까지 노들(盧野)

노보(盧洑)、노정자(盧亭子) 중 노들과 노보(盧洑)의 수원발원지(水原發源地)인 노천정자(盧泉亭子)를 청도읍 원정리 정촌(井村)에서 찾았으니, 선대묘역(先代墓域)과 유적지(遺蹟地)를 발견한 것은, 대동보 편찬의 또 다른 수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노씨 휘(諱) 수(穗) 할아버지의 한 자손이다. 이에 구관(九貫)에 봉백(封伯)된 서열(序列)은 「장연 구(丘)、풍천 지(址)、광주 해(垓)、교하 오(塢)、평양 판(坂)、안강 곤(坤)、연일 증(增)、안동 만(滿)、곡산 원(垣)」의 순(順)입니다.

一、장연문중(長淵門中)의 역대족보(歷代族譜)、금석문(金石文)、선대조(先代祖) 문집(文集)에 사문(斯文)이 기고(寄稿)한 행록(行錄)과 행장(行狀)에는 장연백(長淵伯)이 기일(其一) 위수(爲首)라 하였습니다.

二、외부 문헌으로는 광주구보(光州舊譜)인 임오보(壬午譜 一七六二年)、경인보(庚寅譜 一八三〇年)、신미보(辛未譜 一八七一年)、경자보(庚子譜 一九〇〇年)와 광주인(光州人) 노필연(盧泌淵①) 선생이 저술한 극재집(克齋集) 세계도(世系圖)에는 장연백、광주백、풍천백、교하백、연일백、곡산백、안강백、안동백 순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국별열보(東國閥閱譜) 등에도 장연백 구(丘)께서 장자로 되어 있었으나 광주 경오보(庚午譜)를 편찬하면서 사적란에, 구보(舊譜)에는 장연백을 장자로 기록하고 있으나 정조 때(一七八二)에 편찬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광주백이 첫째로 쓰여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근거로 광주백을 장자로 고쳤다는 것은, 경오보(庚午譜) 이전의 광주

구보(舊譜)에 장연백이 장자(長子)임을 선대조(先代祖)로부터 등재(登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늘(小訥) 노상직(盧相稷) 선생께서 노씨 문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뿐만 아니라 씨족(氏族) 계보
 (系譜)를 다룬 전문성이 없는 증보문헌비고에 따라서 사적란(史蹟欄)에 광주백을 장자로 한다고 기술
 (記述)한 것은, 오상(五常)을 지키지 못함인요 선대(先代)가 편찬간행(編纂刊行)한 족보를 부정한
 선대에 대한 도의(道義)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차서(長次序)와 장자설(長子說)에 시조(始祖) 수(穗) 할아버지의 후손으로서 반드시 밝혀야 할
 과업임을 중시(重視)하고 논쟁(論爭)만 할 것이 아니고 구관 문종의 문헌을 고찰(考察)하고 황해진사
 공파(黃海進士公派)와 평양외성과(平壤外城派) 문헌을 발굴하는데 진력(盡力)하여 주길 바랍니다.

시대의 변천은 씨족(氏族)과 혈연(血緣)을 도외시(度外視)하는 경향이 팽배(彭湃)할지라도 자신
 의, 연원(淵源)마저 경시(輕視)함은 하늘이 있어, 하늘답지 못한 것처럼, 사람이 있어도 사람답지
 못한 것이므로 사람으로서 조상을 숭배(崇拜)하고 그 세계(世系)의 계보(系譜)를 이어가기 위해 구족
 된 인터넷 족보를 계승발전(繼承發展) 시키고 대종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모든 종친(宗親)이 참여
 하는 화합의 광장이 되어 종친동목(宗親敦睦)이 이루어 가길 소원(所願)합니다.

서기 二〇二六년 병오(丙午) 초여름

후손(後孫) 三十四世 관호(觀湖) 규성(圭星) 삼가 씀

장연노씨(長淵盧氏) 족보(族譜) 간행(刊行)의 역사(歷史)

우리 족보(族譜)의 역사는 시조(始祖)로부터 선대(先代)의 누경(累經) 및 가승(家乘)이 사재시령(司宰寺令) 휘영(詠) 때 몽고(蒙古) 침입으로 인한 병화(兵火)로 소실(燒失)된 기록이 장연노씨(長淵盧氏) 유적사지(遺蹟史誌)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임진왜란 때 가승(家乘)과 문적(文蹟)이 소실된 사실이 태학주부(太學主簿) 휘(諱) 준(浚)의 유서(遺書)에 실려 있어 애석(哀惜)하기가 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 편찬분류별(編纂分流別) 간행사(刊行史)

【세계(世系) 초안(草案)】

● 창녕파(昌寧派)

一、 갑오보초(甲午譜草) : 一六五四년도 초안(草案)하였다는 기록이 경진보 발문에 있다.

• 초안년도 : 一六五四년

• 경진보(庚辰譜) 발문(跋文)에 초안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초안본(草案本)은 실전됨.

• 초안자(草案者) : 二十五世 윤갑(胤甲) 좌랑공과 극일(克一)后

二十六世 정준(慶濬) 좌랑공과 극일(克一)后

● 괴산파(槐山派)

一、 정사보초(丁巳譜草) :

全二卷

• 一七三七년도 초안(草案)되었으나 원본(原本)과 사본(寫本)은 실전(失傳)되었음

• 서문(序文) : 二十八世 정익(廷翼) 병절교위공파 인진(仁瑱)后

• 보사(譜事) : 二十八世 정익(廷翼) 병절교위공파 인진(仁瑱)后

二十八世 윤익(雲翼) 통덕랑공파 후삼(后參)后

二、임진보초(壬辰譜草) 一七七二년도 간행(刊行)…………… 全二卷

• 정사보초(丁巳譜草)를 보완하여 발행됨

• 서문(序文) … 없음

• 보사(譜事) … 二十七世 성훈(聖勳) 통덕랑공파 영환(永桓) 后

【파보간행사(派譜刊行史)】

◎ 창녕파(昌寧派)

一、경진보(庚辰譜) … 一八二〇년 간행(刊行)…………… 單卷

• 서문(序文) … 二八世 사마주학(司馬周學) 근지(謹識) 좌랑공파 극일(克一) 后

• 발문(跋文) … 二八世 맹학(孟學) 근발(謹跋) 좌랑공파 극일(克一) 后

• 보소(譜所) … 미상(未詳)

• 종유사(宗有司) … 二八世 정학(程學) 좌랑공파 극일(克一) 后

二八世 장찬(章璨) 좌랑공파 극창(克昌) 后

• 간재유사(幹財有司) … 二八世 인학(仁學) 시정공파 희(禧) 后

二九世 희용(希龍) 좌랑공파 극창(克昌) 后

• 초보교정유사(草譜校正有司) … 二九世 희용(希喆) 좌랑공파 극창(克昌) 后

二九世 희언(希彦) 좌랑공파 극일(克一) 后

• 세파담출유사(世派膽出有司) … 二八世 명학(明學) 좌랑공파 극일(克一) 后

二九世 희무(希武) 좌랑공파 극일(克一) 后

• 인출교정유사(印出校正有司) .. 二九世 희문(希文)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二九世 희봉(希鳳)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二、 병오보(丙午譜) .. 一八四六년 간행(刊行) 單卷

• 서문(序文) .. 상사 생원 창녕 심영준(上舍生員昌寧 成英駿) 근서병찬(謹敍并贊)

• 발문(跋文) .. 二十八世 사일(思駟) 근식(謹識) 집의공파 용(溶)后

二十九世 석용(錫龍) 발문(發文) 집의공파 용(溶)后

• 보소(譜所) .. 미상(未詳)

• 보소도유사(譜所都有司) .. 二十七世 충국(忠國) 집의공파 용(溶)后

• 유사(有司) .. 二十九世 석권(錫權) 집의공파 용(溶)后

二十九世 석두(錫斗) 집의공파 용(溶)后

• 간재유사(幹財有司) .. 二十八世 사술(思述) 집의공파 용(溶)后

二十九世 석구(錫玖) 집의공파 용(溶)后

• 교정유사(校正有司) .. 二十九世 석곤(錫坤) 집의공파 용(溶)后

二十九世 석교(錫敎) 집의공파 용(溶)后

• 교정유사(校正有司) .. 二十九世 석홍(錫洪) 집의공파 용(溶)后

二十九世 석구(錫龜) 집의공파 용(溶)后

三、 신유보(辛酉譜) .. 一九二一年 간행(刊行) 全二卷

• 서문(序文) .. 덕은(德殷) 송증헌(宋曾憲) 서(序)

• 발문(跋文) .. 三十一世 계홍(啓洪) 근발(謹跋) 시정공파 희(禧)后

• 보소(譜所) .. 소곡서당(蘇谷書堂)

• 도청(都廳) .. 三十一世 봉홍(鳳洪)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 유사(有司) .. 三十一世 돈홍(敦洪)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一世 덕홍(德洪)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二世 상계(相契)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三十二世 상동(相洞)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三十世 용음(鏞欽)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二世 상봉(相鳳)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二世 상벽(相薛)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三十一世 정홍(錠洪)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三十二世 상근(相根)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 별정유사(別正有司)

三十一世 우홍(佑洪)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二世 상태(相太) 시정공파 희(禧)后

三十二世 상선(相宣)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二世 상구(相久)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四、을축보(乙丑譜) .. 一九二六년 간행(刊行) 單卷

- 서문(序文) .. 乙丑 三月 三十一世 이손(耳孫) 차홍(鑽洪) 근지(謹識) 집의공파 응(崐)后
- 발문(跋文) .. 三十一世 치원(致源) 근발(謹跋) 집의공파 응(崐)后
- 보소(譜所) .. 未詳

- 도유사(譜所都有司) .. 三十一世 차홍(鑽洪) 집의공파 응(崐)后
- 三十一世 임홍(琳洪) 집의공파 응(崐)后
- 교정유사(校正有司) .. 三十世 봉음(奉欽) 집의공파 응(崐)后
- 三十二世 상근(相根) 집의공파 응(崐)后

- 간재유사(幹財有司) .. 三十一世 치원(致源) 집의공파 응(崐)后
- 三十二世 병정(秉貞) 집의공파 응(崐)后

- 인출유사(印出有司) .. 三十世 두음(斗欽) 집의공파 응(崐)后
- 三十一世 병홍(柄洪) 집의공파 응(崐)后

五、병신보(丙申譜) .. 一九五六年 간행(刊行) 二卷

- 서문(序文) .. 화산(花山) 권용현(權龍鉉) 서(序)

- 발문(跋文) .. 三十二世 상태(秉貞) 시정공파 희(禧)后

- 후기(後記) .. 三十二世 상동(相東)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 도청(都廳) .. 三十二世 상동(相東)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교정(校正) .. 三十二世 상운(相垠) 집의공파 용(溶)后
三十二世 우홍(禹洪)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二世 상옥(相沃) 시정공파 희(禧)后

三十二世 상윤(相允)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내무(內務) .. 三十二世 상국(相國)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一世 대홍(大洪) 집의공파 용(溶)后

三十一世 구홍(九洪)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三世 형환(亨煥)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三世 훈열(薰烈)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一世 선홍(善洪)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三世 장열(莊烈) 시정공파 희(禧)后

三十三世 증열(兢烈)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외무(外務) .. 三十一世 태홍(泰洪) 관관공파 율(嶮)后

三十一世 무홍(武洪) 몽학재공파 잠(潛)后

三十一世 경만(庚萬) 부사공파 변백(抔白)后

三十二世 상수(相秀)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三世 승환(昇煥)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三十三世 병열(柄烈) 몽학재공파 잠(潛)后

※ 병신보(丙申譜)는 연락이 끊어져 여러 차례의 파보(派譜) 간행에 함께하지 못한 十五世 변백(淸白) · 부사공파(府事公派) 후손과 十九世 잠(潛) · 몽학재공파(夢學在公派) 후손들과 합보(合譜)를 이룬 뜻깊은 파보입니다.

◎ 평양의성과(平壤外城派)

一、 계유보(癸酉譜) .. 一九九三年 간행(刊行) 單卷

· 발간사(發刊辭) .. 三十八世 선기(善基) 근서

· 위원장(委員長) .. 三十八世 선기(善基) 평양의성과 덕규(德珪)后

· 부위원장(副委員長) .. 三十七世 연명(然明) 평양의성과 덕규(德珪)后

· 교정(校正) .. 三十六世 형주(滢柱) 평양의성과 덕규(德珪)后

· 감인(監印) .. 三十七世 연봉(然鳳) 평양의성과 덕규(德珪)后

· 총무(總務) .. 三十八世 원규(源珪) 평양의성과 덕규(德珪)后

· 유사(有司) .. 三十七世 연칠(然七) 평양의성과 덕규(德珪)后

三十七世 성환(晟煥) 평양의성과 덕규(德珪)后

三十八世 명성(明晟) 평양의성과 덕규(德珪)后

三十九世 창만(昌萬) 평양의성과 덕규(德珪)后

◎ 괴산파(槐山派)

三十八世 용봉(龍峰) 평양외성과 덕규(德珪)后
 三十七世 연복(然復) 평양외성과 덕규(德珪)后
 三十九世 요부(堯夫) 평양외성과 덕규(德珪)后
 三十七世 연흥(然興) 평양외성과 덕규(德珪)后
 三十六世 권(權) 평양외성과 덕규(德珪)后
 三十七世 연성(然聖) 평양외성과 덕규(德珪)后
 三十九世 정만(京萬) 평양외성과 덕규(德珪)后

一、 병인보(丙寅譜) .. 一八〇六년 간행(刊行)

全二卷

• 서문(序文) .. 문원정자(文院正字) 평강(平康) 채홍운(蔡弘韻) 은서(謹序)

• 발문(跋文) .. 三十世 이원(彝源) 통정대부공파 후급(后俛)后

三十世 이순(彝循) 안음공파 인근(仁瑾)后

三十世 수연(洵淵) 병절교위공파 인전(仁瑱)后

• 보소(譜所) .. 未詳

• 임원(任員) .. 간(幹) 족보에서 찾지 못함

三十世 이흠(彝欽) 통정대부공파 후급(后俛)后

三十世 이석(彝錫) 판윤공파 효공(孝恭)后

三十世 이순(彝循) 안음공파 인근(仁瑾)后

三十世 순연(洵淵) 병절교위공파 인전(仁填)后

二、무진보(戊辰譜) .. 一八六八年 간행(刊行)..... 單卷

· 서문(序文) .. 가선대부병조참판(嘉善大夫兵曹參判) 겸 동지경연춘추관의금부사(同知經筵春秋館義禁府事)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 신좌모(申佐模) 근서(謹序)

· 발문(跋文) .. 간(幹) 족보에서 찾지 못함

· 보소(譜所) .. 未詳

· 임원(任員) .. 간(幹) 족보에서 찾지 못함

三、무진보보완보(戊辰譜補完譜) .. 一八七六年 간행(刊行)..... 失傳

· 발문(跋文) .. 간(幹) 족보에서 찾지 못함

四、무인보(戊寅譜) .. 一九三八년 간행(刊行)..... 全二卷

· 서문(序文) .. 三十三세 내원(來遠) 승정대부공파 후상(后尙)后

三十二세 명관(命官) 충순위공파 영복(永福)后

· 발문(跋文) .. 미상(未詳)

五、임인보(壬寅譜) .. 二〇二二年 간행(刊行)..... 全二卷

· 서문(序文) .. 三十五세 두영(斗永) 근지(謹識) 안음공파 인근(仁瑾)后

· 후기(後記) .. 三十七세 남열(南烈) 근서(謹書) 통덕랑공파 후삼(后參)后

수단위원(收單委員)	일영(一永)	병절교위공파	음성(陰城)
수단위원(收單委員)	원식(元植)	병절교위공파	진천(鎭川)
수단위원(收單委員)	방식(邦植)	병절교위공파	청주(淸州)
보사(譜事)	두영(斗永)		
실행위원(實行委員)	수영(壽永)	종중총무(宗中總務)	
실행위원(實行委員)	창영(昌永)	종중회장(宗中會長)	
편찬위원(編纂委員)	광영(光永)		
편찬위원(編纂委員)	춘진(春鎭)		
편찬위원(編纂委員)	남열(南烈)		
편찬위원(編纂委員)	두영(斗永)		
위원장(委員長)	인진(仁鎭)		청주(淸州)
고문(顧問)	세영(世永)		괴산(槐山)
고문(顧問)	진용(鎭容)		충주(忠州)
고문(顧問)	향열(香烈)		진천(鎭川)
고문(顧問)	학영(學永)		
고문(顧問)	진규(鎭奎)		

수단위원(收單委員)	규식(圭植)	병절교위공파	음성(陰城)
수단위원(收單委員)	형식(亨植)	병절교위공파	김포(金浦)
수단위원(收單委員)	찬섭(贊燮)	부사공공파	논산(論山)
수단위원(收單委員)	영준(永俊)	부사공공파	괴산(槐山)
수단위원(收單委員)	진권(鎭權)	즉산현감공파	평택(平澤)
수단위원(收單委員)	향열(香烈)	통덕랑공파	충주(忠州) 소태면
수단위원(收單委員)	경열(瓊烈)	통덕랑공파	충주(忠州) 소태면
수단위원(收單委員)	남열(南烈)	통덕랑공파	충주(忠州) 신니면
수단위원(收單委員)	홍식(洪植)	통덕랑공파	음성(陰城) 삼성면
수단위원(收單委員)	병국(炳國)	통덕랑공파	단양(丹陽)
수단위원(收單委員)	병문(炳文)	통덕랑공파	단양(丹陽)
수단위원(收單委員)	두영(斗永)	공조좌랑공파	괴산(槐山)
수단위원(收單委員)	봉진(奉鎭)	공조좌랑공파	괴산(槐山)
수단위원(收單委員)	은영(殷永)	승정대부공파	괴산(槐山)
수단위원(收單委員)	정열(正烈)	통정대부공파	괴산(槐山)
수단위원(收單委員)	진용(鎭容)	충순위공파	괴산(槐山)
수단위원(收單委員)	영배(泳培)	충순위공파	괴산(槐山)
수단위원(收單委員)	상희(相熙)	판윤공파	청주(淸州)
수단위원(收單委員)	훈(薰)	판윤공파	청주(淸州)

【세보간행사(世譜刊行史)】

一、병오보(丙午譜) .. 一九六六년 간행(刊行)..... 全四卷

• 서문(序文) .. 병오초춘(丙午初春) 외예(外裔) 창녕(昌寧) 성기덕(成耆德) 근찬(謹撰)

• 발문(跋文) .. 三十二世 상욱(相沃) 근서(謹書) 창녕 시정공파 희(禧)后

• 발문(跋文) .. 三十三世 조원(照遠) 근서(謹書) 괴산 안응공파 인근(仁瑾)后

• 보소(譜所) .. 소곡서당(蘇谷書堂)

• 도청(都廳) .. 三十二世 상태(相太) 창녕 시정공파 희(禧)后

三十三世 조원(照遠) 괴산 안응공파 인근(仁瑾)后

• 총무(總務) .. 三十二世 상국(相國)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四世 진국(鎭國) 괴산 통덕랑파 후삼(後參)后

三十三世 형환(亨煥)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 교정(校正) .. 三十三世 장열(莊烈) 창녕 시정공파 희(禧)后

三十三世 회원(懷遠) 괴산 부사공파 인진(仁璉)后

• 장재(掌財) .. 三十二世 상용(相用)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三世 재열(在烈) 창녕 시정공파 희(禧)后

三十三世 우열(宇烈)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四世 진학(鎭學) 괴산 승정대부공파 후상(後尙)后

• 서기(書記) .. 三十一世 선홍(善洪)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三世 증열(兢烈)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三世 병열(柄烈)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 간사(幹事) .. 三十一世 정홍(貞洪)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一世 대홍(大洪) 창녕 집의공파 용(崧)后

三十二世 상택(相宅) 창녕 집의공파 용(崧)后

三十三世 문원(文遠) 괴산 승정대부공파 후상(後尙)后

三十五世 영태(泳台) 괴산 승정대부공파 후상(後尙)后

• 감무(監務) .. 三十二世 상수(相秀) 창녕 집의공파 용(崧)后

三十三世 봉환(鳳煥) 창녕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 병오보(丙午譜)는 고려 六百여년 간 연락이 끊어졌던 十四世 성주(誠柱) 공의 후손들을 상기

(相琪: 三十二世 집의공파) 공께서 공무 수행 중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창녕파와 괴산파가 합

보(合譜)를 이룩한 장연노씨 최초의 세보(世譜)이다.

二、 을축보(乙丑譜) .. 一九八五年 간행(刊行) 全三卷

• 서문(序文) .. 을축 청명절(乙丑清明節) 광주(廣州) 이복(李馥) 근서(謹序)

• 후식(後識) .. 三十三世 봉환(鳳煥) 창녕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 보소(譜所) .. 소곡서당(蘇谷書堂)

• 도청(都廳) .. 三十三世 봉환(鳳煥) 창녕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三十三世 회원(懷遠) 괴산 부사공파 인진(仁璉)后

• 교정(校正) .. 三十三世 동환(東煥) 창녕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三十四世 인술(仁述)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三世 석열(錫烈)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三世 두환(斗煥)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 선사(繕寫) .. 三十三世 진환(鎭煥)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三世 병열(柄烈)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 장재(掌財) .. 三十三世 우열(宇烈)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四世 맹술(孟述)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三世 우열(佑烈) 창녕 시정공파 희(嶧)后

三十五世 영태(泳台) 괴산 승정대부공파 후상(後尙)后

• 감무(監務) .. 三十四世 하진(夏鎭) 괴산 병절교위공파 응(膺)后

三十一世 여홍(呂洪)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二世 상숙(相淑)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一世 경호(景浩) 창녕 부사공파 변백(抔白)后

三十四世 진학(鎭學) 괴산 승정대부공파 후상(後尙)后

三十三世 동열(東烈)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三世 철환(鐵煥) 창녕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 외무(外務) : 三十二世 명천(命天) 괴산 통덕랑공파 영환(永桓)后

三十三世 응환(應煥) 창녕 집의공파 용(溶)后

三十二世 상구(相球) 창녕 집의공파 용(溶)后

三十四世 기호(基皓) 창녕 몽학재공파 잠(潛)后

三十三世 맹환(孟煥) 창녕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三十三世 상우(相雨)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四世 증술(曾述)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二世 정호(廷浩)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三世 종열(宗烈) 창녕 창녕 몽학재공파 잠(潛)后

三十三世 기환(器煥)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二世 상출(相出) 창녕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三十一世 인홍(潐洪)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二世 상덕(相德)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二世 상하(相夏) 창녕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三十一世 인출(一出) 창녕 부사공파 변백(抔白)后

三十五世 도영(道永) 괴산 병절교위공파 응(膺)后

三十三世 흥원(興遠) 괴산 부사공파 인진(仁璉)后

三十六世 상길(相估) 괴산 승정대부공파 후상(後尙)后

三十三世 달환(達煥) 창녕 집의공파 응(嶧)后

三十三世 계원(屆遠) 괴산 안음공파 인근(仁瑾)后

三十四世 진엽(鎭燁) 괴산 안음공파 인근(仁瑾)后

三十一世 근홍(瑾洪) 창녕 집의공파 응(嶧)后

三十一世 무홍(武洪) 창녕 판관공파 율(嶧)后

三十五世 해영(海水) 괴산 승정대부공파 후상(後尙)后

三十三世 장열(章烈)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三世 희열(熙烈)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二世 상필(相弼) 창녕 판관공파 율(嶧)后

三十六世 인식(寅植) 괴산 통덕랑공파 후삼(後參)后

三十七世 흥열(興烈) 괴산 병절교위공파 응(膺)后

三十三世 필원(弼遠) 괴산 죽산현감공파 승손(承孫)后

三十三世 오환(吾煥) 창녕 집의공파 응(嶧)后

三十六世 호식(鎬植) 괴산 통덕랑공파 후삼(後參)后

三十四世 중진(重鎭) 괴산 병절교위공파 응(膺)后

三十三世 장열(漳烈) 창녕 집의공파 응(嶧)后

【대동보간행사(大同譜刊行史)】

一、병오보(丙午譜) .. 二〇二六년 간행(刊行)

全三卷

- 발간서문(發刊序文) .. 장연노씨 대종회 · 대동보 편찬위원회 근찬(謹撰)
- 발간사(發刊辭) .. 三十三世 수환(秀煥) 창녕(昌寧) 근발(謹跋)
- 발간사(發刊辭) .. 三十四世 길명(吉明) 평양외성(平壤外城) 근발(謹跋)
- 발간사(發刊辭) .. 三十六世 명식(明植) 괴산(槐山) 근발(謹跋)
- 편찬후기(編纂後記) .. 三十四世 규성(圭星) 창녕(昌寧) 근식(謹識)
- 보소(譜所) .. 대보사(大譜社)
- 위원장(委員長) .. 三十三世 수환(秀煥) 창녕 집의공파 용(崧)后
- 부위원장(副委員長) 三十四世 길명(吉明) 평양 외성과 덕장(德璋)后
 三十六世 명식(明植) 괴산 안응문공파 인근(仁瑾)后
- 총무(總務委員) .. 三十四世 규성(圭星) 창녕 집의공파 용(崧)后
- 재무(財務委員) .. 三十三世 희열(熙烈)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 전산(電算委員) .. 三十四世 규익(圭楫) 창녕 집의공파 용(崧)后
- 감사(鑑査委員) .. 三十四世 기호(基昊)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四世 기찬(基璨)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 교정(校正委員) .. 三十三世 수환(秀煥) 창녕 집의공파 용(崧)后
 三十四世 규성(圭星) 창녕 집의공파 용(崧)后
 三十四世 재영(在永) 창녕 집의공파 용(崧)后
 三十四世 기조(基祚) 창녕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 편수(編修委員) .. 三十二世 상수(相燧) 창녕 판관공파 율(嶮)后

三十四世 충웅(忠雄) 괴산 안음공파 인근(仁瑾)后

三十五世 은영(殷永) 괴산 승정대부공파 후상(後尙)后

三十七世 형열(亨烈) 괴산 승정대부공파 후상(後尙)后

三十五世 광영(光永) 괴산 승정대부공파 후상(後尙)后

三十五世 창영(昌永) 괴산 안음공파 인근(仁瑾)后

三十四世 문기(文基) 창녕 좌랑공파 극창(克昌)后

三十四世 기원(基元)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三十三世 근환(根煥) 창녕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庚辰派譜序文 昌寧 鄭進과보 서문 창녕

보첩지작고야주시유세본한대유년표상계파이차변씨족이차기돈종홀친지의
譜牒之作古也周時有世本漢代有年表詳系派以此卞氏族以此其敦宗恤親之誼
보본추원지도개계언신호기불경이중야정부자왈골육무통지친은박보첩폐지
報本追遠之道皆系焉信乎其不輕而重也程夫子曰骨肉無統至親恩薄譜牒廢之
고소명윤왈관오보자효제지심가이유연이생수초모위희비미단한지족보고불
故蘇明允曰觀吾譜者孝悌之心可以油然而生雖草茅韋希痺微單寒之族譜固不
가이불작야신호고가우족칭이무차보호유아노씨수관장연석재승극속기부여
可以不作也矧乎故家右族稱而無此譜乎惟我盧氏受貫長淵昔在勝國淑氣扶輿
자성부번체지아조대유문인향칭선족가위능세기가이문호지대월유구의임정
子姓阜蕃逮至我朝代有聞人鄉稱選族可謂能世其家而門戶之大厥惟舊矣壬丁
병선지후년대창상보계단소선부노개연어사도소이수관이유지미취락락여신
兵燹之後年代滄桑譜系斷索先父老慨然於斯圖所以綉板而有志未就落落如晨
星殆天以盧氏爲盛且久使之應物盛而衰數極而止之理耶陰極陽生終而復始亦
기수지자연개유진이부복지리야적여불초상지즉위삼년임슬동득구대방조
氣數之自然豈有盡而不復之理也適余不肖上之即位三年壬戌冬得九代傍祖

태학주부휘준지유서어성균관기래맥가심지로분파가빙지계유여환미감수자
 太學主簿諱浚之遺書於成均館其來脉可尋之路分派可憑之階有如喚迷撼睡者
 의어희보자오가선인지지척승선인지지소이성차보야차선세적루기본계우배
 矣於戲譜者吾家先人之志則承先人之志所以成此譜也且先世積累基本啓佑培
 옹이후승지인찬소발휘지미사시보하이재여호서종인운기사요이취서이명문
 壅而後承之人續紹發揮之美舍是譜何以哉與湖西宗人尹其事要以就緒而名門
 고족막오종약고구취물력경기심협이기부졸수정지도함계신증지여하칙관괴
 孤族莫吾宗若故鳩聚物力經紀甚狹而其裒稴修正之道咸繫愼重之如何則管蒯
 불유호모필수연후가이무소경외매지탄의합간칙고사소십년지공이위선여근
 不遺毫毛必收然後可以無騷經外梅之歎矣合刊則姑俟消十年之功而爲先與近
 대동파지종고제만성잠영보이질지주부공유서자성일첩이사후일지돈의운이
 代同派之宗考諸萬姓簪纓譜而質之主簿公遺書自成一牒以竣後日之敦議云爾

皇明紀元後四庚辰二月下泮 後孫 司馬 周學 謹識
 皇명기원후사경진이월하한 후손 사마 주학 근지

경진과보 서문 역문(譯文) 창녕

족보를 책으로 편찬된 것은 오래되었다. 주(周) 나라 시대 세본(世本①)이라는 책이 있었고 중국
 한(漢) 나라 때는 년표(年表)라는 보첩(譜牒)은 세계(世系)를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니 이로부터 씨족(氏)

族)을 서로 구별하고 혈연(血緣)으로 뭉쳐진 같은 종파(宗派)끼리 신의를 지키고 서로 믿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본을 알고 조상의 덕을 추모하는 진실한 이치가 모두 혈통(血統)으로 맺어진 친족(親族) 관계이므로 가법계 할 수가 없기에 소중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으리라. 정부자(程夫子②)가 이르기를 혈족(血族)으로서 계통(系統)이 없다면 따듯하고 깊은 정이 야박(野薄)한 것은, 보첩(譜牒)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윤(蘇明允③)이 말하기를 보첩(譜牒)을 읽는 사람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友愛)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니 비록 초가집에 살면서 배춧잎은 사람이나 친족이 없어도 독하고 가난한 종족(宗族)이라도 보첩은 없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여러 대를 거치면서 훌륭한 가문이라고 들으면서 행세하는 대족(大族)으로서 어찌 족보(族譜)가 없을 수 있으리요. 오직 우리 장연노씨(長淵盧氏)는 장연(長淵)을 본관(本貫)으로 받아 고려조에서 좋은 기운이 솟아오르니 명예와 명성을 얻어 번성(蕃盛)한 성씨(姓氏)로 일컬어지고 조선조(朝鮮朝)에서도 대대(代代)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특별한 가문이라 일컬고 있으니 당연히 명문대가(名門大家)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가문이었으니 임정병란(壬丁兵亂④) 때 족보(族譜)가 소실(消失)된 후, 세대(世代)가 바뀌면서 보계(譜系)가 끊어지니 선대(先代) 때부터 이를 탄식하면서 족보편찬을 도모하였으나 뜻만 품은 채 실행하지, 못하고 새 벽별 떨어지듯이 돌아가신지라 장연노씨가 오랜 세월 대족(大族)이었으나 만물이 쇠퇴하듯 한계에 도달하여 멈추도록 내버려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음양의 자연스러운 순환의 끝과 시작 혹은 다스려야 하는 명분의 질서이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끝이 났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초가 주상이 즉위한 3년 임술(壬戌) 겨울에 九代 방조(傍祖) 태학주부(太學主簿⑤) 휘(諱) 준(浚⑥)

께서 남기신 유서를 성균관에서 얻었으니 이는 그 내용에서 선대의 세제(世系)와 파계(派系)의 정로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로서 보계(譜系)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접하고 보니 미후(迷惑)한
 자를 일깨우는 경종처럼 보침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셨던 우리 문중 선인(先人) 분들의 뜻을 받들고
 더욱이 우리 조상들이 쌓아 올린 후대에 길러진 토대는 그 아름다움을 계승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계승(繼
 承)되어 발전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族譜)가 왜 그토록 소중한 것일까요? 우리는 후세(後世)
 씨족(氏族)의 모든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들이 쌓아 올린 토대와
 그 혈통(血統)의 계승(繼承)과 발전 그리고 선대(先代)가 쌓고 쌓은 밑바탕을 후손(後孫)들이 받들
 고 이어받아서 어찌 이 족보(族譜)를 편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충청도 종인(宗人)들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문중이 비록 문벌(門閥)이 좋은 집안이나 일가친척이 적어서 외로
 운지라 연고(緣故)가 많지 않아 재정을 조달하기가 몹시 범위가 열악하지만, 사사로운 일이 아
 닌 모두의 일익에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여 도리(道理)에 어긋나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을 조심
 하고 작은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잘 거두고 기록하면 연후(然後)에 원성(怨聲)을 듣거나 뒤우
 칠 일이 없어야 합니다. 소홀히 하면 보책(譜冊)을 펴낸 후 조상을 위해 일한 십 년 공로가 사라질
 것이다. 당대의 높으신 직위의 조상을 비롯하여 모든 조상의 계보도(系譜圖)는 주부공(主簿公)께서 작
 성한 유서(遺書)를 바탕으로 편찬(編纂)한 보침(譜牒)이므로 앞으로 다가올 날에 많은 종인(宗人)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一八二〇년 후손 사마(司馬)⑦ 주학(周學)⑧ 삼가 기록함

【脚註】

① 세본(世本) .. 중국 고대 역사서 중 하나로 주나라 때 사관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족보학사(族譜學史)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료이다.

② 정부자(程夫子) ..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 정호(程顥) 정이(程頤) 형제를 함께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정주(程朱) 사상의 창시자로 주자학(朱子學)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동아시아 유교 사상에서 도덕적 실천과 이치 탐구의 상징적 인물이다.

③ 스명윤(蘇明允) .. 중국 북송 시대의 문인 스윤(蘇洵)의 字로 노천(老泉) 또는 노스(老蘇)로도 불리며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아들 소식(蘇軾)과 소철(蘇轍)과 함께 삼소(三蘇)로 불리며 예(禮)와 문장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④ 임진병란(壬丁兵亂) ..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정유재란(丁酉再亂)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⑤ 태학주부(太學主簿) .. 조선시대에 설치된 교육기관 태학에서 행정 실무와 기록 문서 관리를 담당하던 종육품 관직

⑥ 준(浚) .. 十九世 종육품 태학주부 역임하였고 十八世 가선대부 병조참판 휘(諱) 사영(士英) 공의 넷째 아들이다.

⑦ 사마(司馬) ..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뽑던 과거(科擧) 사마시(司馬試)로서 초시(初試)와 복시(覆試)가 있었으며 양시(兩試)의 급제자를 일컫는 통칭(統稱)

⑧ 주학(周學) .. 성균관 진사 二十八世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庚辰派譜 發刊辭 昌寧 경진파보 발간사 창녕

보자 보기 족이 우세 제지 실전 이 작야 개자 상고 범유자 성자 막불유보 이오가지 독
譜者譜其族而憂世系之失傳而作也蓋自上古凡有子姓者莫不有譜而吾家之獨

역문(譯文) 번역(翻譯)

장연노씨 대동보 편찬위원회

무보억하이재오지선본이증극범양가족당선종말휘수술구자도강체지증엽사
 無譜抑何以哉吾之先本以中國范陽嘉族唐宣宗末諱穗率九子渡江逮至中葉寺
 령공휘영남이청도지우아조청민공휘변소재이우창녕월미동즉오생장촌야기
 令公諱詠南移清道至于我朝清敏公諱畧素再移于昌寧月未洞即吾生長村也其
 세대지잠영문호지번연수명가우족막능가야월재용사지번효자공휘홍언포모
 世代之簪纓門戶之蕃衍雖名家右族莫能加也粵在龍蛇之變孝子公諱弘彥抱母
 寸절어조진남대산함진지시병화소금미유혈유자선가승여문적안가보전어겁
 殉節於曹鎭南臺山陷陣之時兵火所及靡有子遺自先家乘與文蹟安可保傳於劫
 신지후재희석재기헌공휘운갑사호공휘경준개연유지어수보이전진영사문헌
 燼之後哉噫昔在棄軒公諱胤甲沙湖公諱慶濬慨然有志於修譜而前塵影事文獻
 무징후겁풍상세대막고광수박방미극성취하행삼종형휘주학씨임슬춘증사마
 無徵後劫風霜世代莫考廣收博訪未克成就何幸三從兄諱周學氏壬戌春中司馬
 망월명년삼월태학지석득견증화읍이상사명관즉구대방조휘준지외예야수일
 榜越明年三月太學之席得見中和邑李上舍命寬即九代傍祖諱浚之外裔也袖一
 부유서이전우아비등과위영득차위영이시조지소자래파계지소유분환연복명
 部遺書以傳于我非登科爲榮得此爲榮而始祖之所自來派系之所由分煥然復明
 어세주부공지서어시위대이미진사형역막능인기서이득차보야오선조름연정

於世主簿公之書於是爲大而微進士兄亦莫能因其書而得此譜也吾先祖凜然精
 壯想必默佑於冥冥之中而臨之在上質之在傍自茲以往盧之門其庶幾乎惟余從
 叔父諱泰惺旣述先志又考遺書以爲一冊子姑竢來雲之幹事而手澤猶新嗚乎譜
 牒之作幸在今日庶乎骨肉有親孝悌之心油然而生追遠報本之誠敦宗懿親之道
 得之於是

후손(後孫) 맹학(盟學) 근질(謹跣)

경진파보 발간사 역문(譯文) 창녕

족보(族譜)는 가문의 혈통(血統)을 기록한 것으로 그 전승(傳承)이 22등길 것을, 우려하여 종족(宗
 族)의 제보(系譜)를 엮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후손(後孫)이 쓰는 문은 가문(家門)은 족보(族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가문
 (家門)만은 족보(族譜)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조상은 원래 중국(中國)의 범양(范陽) 가족(嘉族)으
 로서 당나라 선종(宣宗) 말, 휘(諱) 수(穗) 할아버지께서 아홉 아들을 거느리고 가을 건너서 오셨으니
 이후 고려 증엽에 이르러 시령공(寺令公) 휘(諱) 영(詠) ①께서 나뭇가 청도로 옮기셨으며 조선왕조에 이르러 청민

공(淸敏公) 휘 변소(抆素②) 공께서 두 번째로 창녕 월미 마을로 이주하였으니, 이곳이 바로 우리 가문(家門)의 고향입니다。우리 가문은 대대로 관료를 배출하고 명문 가문들이 이루며 번성(繁盛)했고 그 어떤 가문이나 씨족(氏族)도 우리 가문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그러나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효자(孝子) 휘 홍언(弘彦③) 공께서는 창의장(倡義將) 조진남(曹鎭南)과 창의(倡義)하여 대산진(臺山陣) 전투에서 진(陣)이 함락되어 전멸당할 때 어머니를 업고 함께 순절(殉節)하셨다。당시 바로 그곳 전장(戰場)터에 단 하나 남은 것이 있었으니, 공의 효심(孝心)에 감동한 적이 남긴 표목(標木)을 세운 것이다。전쟁은 많은 것을 파괴했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 다。이토록 참혹(慘酷)한 파괴 속에서 우리 가문(家門)을 기록한 문적(文籍)들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겠는가? 선대(先代)의 계보(系譜)인 족보(族譜)와 문적(文籍)을 지키지 못하고 오랑캐에게 빼앗기고 불타버렸으니 아 애석하고 슬프도다。기헌공(棄軒公) 휘 윤갑(胤甲④)과 사호공(沙湖公) 휘 경준(慶濬⑤)께서 족보(族譜)를 편찬(編纂)하려고 뜻을 두었으나 전란(戰亂) 후 문헌(文獻)이 검탈되거나 소실(燒失)되어 검증할 수가 없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대(世代)를 참조하면서 널리 거두고 멀리 찾아보았지만 미치지 못하여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다。다행히도 나의 삼종(三從) 형님 주학(周學⑥) 공께서 신유(辛酉一八〇一)년 봄에 사마방(司馬榜)에 오르니 이듬해 삼월 태학상급(太學上揖)의 자리에서 중화읍(中和邑)에 사는 상사(上舍⑦) 이명관(李命寬⑧)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다。이상사(李上舍)는 곧 나의 구대(九代) 방조(傍祖)이신 휘(諱)준(浚⑨) 공의 외예(外裔)였습니다。그는 우리의 유산(遺産)인 유서(遺書)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 유서(遺書)를 나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내가 이 영광(榮光)을 누리게 된 것은, 과거(科擧)에 급제(及

第)한 것 보다 우리 선조(先祖)의 혈통(血統)과 가문(家門)의 기원(起源)을 밝히고 세계(世系)와 파계(派系)를 이루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연유(緣由)를 명백하게 밝혀 짐은 아아! 세상에서 주부공(主簿公)의 글보다 더 쓸 수는 없고 진사 형님 역시 그 글을 제기로 이 족보(族譜)를 얻는 뜻밖의 소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님의 고결하고 세련된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를 말없이 지켜주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노씨(盧氏) 가문(家門)의 족보(族譜)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종숙부(從叔父) 휘(諱) 태성(泰惺)^⑩ 공께서 이미 조상(祖上)님의 유언(遺言)을 듣고 바로 유서(遺書)를 깊게 파악(把握)하여 한 권의 책을 편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족보(族譜)가 완성되어 그 내용이 생생하게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족보(族譜)를 얻게 되었고 족보(族譜)의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 이루어졌으니 친척들 사이에 돈목(敦睦)을 도모(圖謀)하고 효심(孝心)과 형제(兄弟)간 우애(友愛)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조상(祖上)을 기리고 뿌리에 감사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생겨나 혈연(血緣)과 친족(親族)의 도(道)를 지키려는 의지를 향상(向上)시키고 어버이를 공경(恭敬)하는 도리(道理)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후손(後孫) 맹학(孟學)^⑩ 삼가 씀

역문(譯文) 번역(翻譯)

장영노씨 대동보 편찬위원회

후손(後孫) 맹학(孟學^⑩) 삼가 씀

역문(譯文) 번역(翻譯)

장연노씨 대동보 편찬위원회

【脚註】

- ① 영(詠) ..十一世 고려 희종(熙宗) 때 종사품 사재시경(司宰寺卿) 역임
- ② 변소(抔素) .. 초휘(初諱) 참(畚) 字 회문(繪文) 시호(諡號) 청민(淸敏) 자헌대부(資憲大夫) 대호군(大護軍) 가자(加資) 되었다.
- ③ 홍언(弘彦) ..二十世 성균관진사(成均館進士)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창의(倡義) 대산진(大山陣) 전투에서 순절(殉節)하여 정려(旌閭) 되고 절효공(節孝公)의 시호(諡號)를 받았다.
- ④ 윤갑(胤甲) ..二十五世 字 공술(公述) 號 기현(棄軒)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실려 있다.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 ⑥ 주학(周學) ..二十八世 字 원초(元初) 號 도호(道湖) 경진파보(庚辰派譜)를 편찬(編纂)하였으며 도호문집(道湖文集)이 있다.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 ⑦ 상사(上舍) ..조선시대 때 소과(小科)인 생원과(生員科)에 합격(合格)한 사람 일컬음
- ⑧ 이명관(李命寬) ..생원(生員)으로, 휘 효언(孝彦) 공의 사위 이숙양(李淑養)의 후손이다.
- ⑨ 준(浚) ..十九世 증유품 태학주부 역임하였고 十八世 자선대부 병조참판 휘 사영(士英) 공의 넷째 아들이다.
- ⑩ 태성(泰惺) ..二十七世 字 내인(乃仁)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 ⑪ 맹학(孟學) ..二十八世 字 문중(文仲) 좌랑공파 극일(克一)后

丙午派譜 序文 昌寧 병오파보 서문 창녕